

Social Service Needs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by Timing of Disability Onset

Daeun Oh*

*Senior Researcher, Dept. of Public Finance and Statistic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jong, Korea

[Abstract]

As the popul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inues to age, the demand for social services is becoming more diverse. However, policy respons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timing of disability onset remain insufficient. This study distinguishes between individuals who have aged with a disability and those who acquired a disability due to aging. It categorizes the social service needs of each group and examines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Using data from the 2023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 basic analysis and latent class analysis(LCA) were conducted. Both groups were classified into three latent types, but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differed. Older adults with early-onset disabilities were categorized as having “minimal needs”, “care and health-focused needs”, and “multidimensional needs with a focus on cultural participation”. In contrast, those with age-related disabilities were grouped into “minimal needs”, “care-intensive needs”, and “multidimensional needs”. The former group showed stronger needs for cultural and social participation, while the latter showed more pronounced care need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tructure of needs varies depending on the timing of disability onset and suggest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ailored social service policies that consider individuals’ life course and aging process.

▶ **Key words:**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ging with Disability, Disability with Aging, Social Service, Latent Class Analysis

[요 약]

장애인의 고령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장애 발생 시기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유형화한 후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기초분석과 잠재계층분석(LCA)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구성과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고령화된 장애인은 ‘최소 욕구형’, ‘돌봄·건강 중심형’, ‘문화중심 다차원 욕구형’으로, 노화에 따른 장애인은 ‘최소 욕구형’, ‘돌봄 집중형’, ‘다차원 욕구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전자는 문화·사회참여 욕구가, 후자는 돌봄 욕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장애 발생 시점에 따라 욕구가 상이하게 형성됨을 보여주며 생애경로 및 노화과정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주제어:** 장애인, 고령화된 장애인, 노화에 따른 장애인, 사회서비스, 잠재계층분석

• First Author: Daeun Oh, Corresponding Author: Daeun Oh

*Daeun Oh (daeunoh@kihasa.re.kr), Dept. of Public Finance and Statistic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Received: 2025. 05. 27, Revised: 2025. 07. 03, Accepted: 2025. 07. 04.

I. Introduction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구 구조도 변하고 있는데 장애인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3년 40.4%에서 2023년 53.8%로 과반을 차지해 전체 인구 기준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그러나 이를 단순히 장애인의 고령화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고령화된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과 노화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집단(disability with aging)으로 구분¹⁾하고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3][4][5]. 이들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정체성과 욕구를 지닌 상이한 집단으로 장애 원인과 유형, 사회적 문제 및 활동 제약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2][3]. 이들의 특성과 욕구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장애인으로 일반화하면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4], 대부분 연구에서 노화에 따른 장애 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이들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다루었다[3][4].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집단 간 차이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거나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 우울 등 사회심리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3][4][6]. 그러나 이들은 장애 발생 시기와 생애 과정의 차이로 인해 복합적인 욕구를 공유하면서도 실제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상이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제 서비스 이용 욕구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집단별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라 장애를 경험한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유형화하여 비교함으로써 각 집단 간 욕구의 구조적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찰대상 관점의 분석방법인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이하 LCA)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한 계층을 도출하고,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은 각각 어떤 사회서비스 욕구 유형을 보이는가?
2. 두 집단의 사회서비스 욕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Preliminaries

1.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장애를 가진 노인은 노인문제와 장애문제를 이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비장애 노인이나 노년에 이르지 않은 장애인과는 다른 개인 및 사회적 특성을 지닌다[3]. 장애노인이 직면하는 이슈는 생의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연속적인 형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6].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노인을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일반적으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으로 나뉜다[6][7]. 고령화된 장애는 노인이 되기 전 선천적 또는 중도 장애로 인해 젊은 연령에 장애가 발생해서 노년에 이른 경우에 해당되고, 노화에 따른 장애는 노인이 되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3].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합의된 개념은 없으며 학자마다 정의가 상이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는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다[5]. 고령장애인의 연령 법적 기준은 없지만 이는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국민연금법」에서는 만 60세 이상을, 그리고 고용에서는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을 구분할 때에도 연령 기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5].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고령화된 장애인은 장애 발생 이후 15~20년 이상이 되면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그리고 45세~55세에 조기노화가 시작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와 더불어 ‘이차적인 장애’를 경험한다[5]. 이들은 장애의 노화와 심화에 따른 질병의 복합성을 경험하고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가 내면화되면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비장애인에 비해 은퇴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노화에 따른 장애인은 관절염, 당뇨, 고혈압, 뇌혈관질환, 중풍, 치매 등 고령화된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년기에 좀 더 초점을 둔 원인과 그 유형을 강조한다[2][3]. 그리고 노후에 접어들게 되면서 노인 문제와 동시에 장애로 인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보기도 한다[2]. 이들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이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보다 ADL(일상생활동작)과 IADL(수단적

1) 장애인에 대한 합의된 용어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채로 나이 든 사람은 ‘고령화된 장애인’, 그리고 노화로 인해 장애가 생긴 사람은 ‘노화에 따른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일상생활동작)에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3]. 그리고 이들은 고령화된 장애인보다 낮은 장애 정체성을 지니며 이와 관련하여 우울 정도는 더 낮고 삶의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 건강 상태 또한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에서 더 나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집단 간 차이보다는 장애수용이 잘 되고 장애 차별 경험이 적으며 경제 활동 활동을 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2. Social service needs

국내 복지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득보장보다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여왔으며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기조로 사회서비스 혁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9][10].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문화, 주거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장애노인은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영역에서 공통적인 서비스 제공대상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없고 전달체계 상에서도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6]. 장애노인 내에서도 장애 원인과 발생시기, 장애유지 기간이 달라 장애특성과 우선 순위 욕구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5]. 이를 살펴보면 고령화된 장애인은 이동, 사회참여에 관심이 있고 소득과 주거 보장 욕구가 높은 반면, 노화에 따른 장애인은 돌봄, 의료에 관심이 있고 의료보장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따라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확충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9][11]. 그리고 사회서비스 욕구는 일상의 결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11] 면밀한 파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은 건강 상태, 기능 수준, 사회적 참여 양상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집단 간 특성 차이에 국한되거나 욕구 전반에 대한 포괄적 논의에 그친 한계가 있어, 욕구 유형화 및 구조적 차이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애노인에 대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복합적인 욕구를 면밀하게 살피는 접근이 필요하다.

III. Research Method

1. Analysis Object and Data

분석을 위하여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12]. 조사대상자 총 8,000명 중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은 3,936명이며, 이들을 장애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64세 이전과 65세 후에 장애판정을 받은 자로 구분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의 연령기준은 분야마다 상이하다. 다만 복지영역에서는 65세 기준으로 정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대부분의 복지 및 사회서비스도 65세 기준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고려하였다.

2. Key Variable

2.1 Social Service Needs

우리나라는 현금급여를 제외하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는 대부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기관을 통해 전달된다[13]. 따라서 사회서비스 이용 욕구는 16개 장애인 복지기관의 이용 희망여부로 측정하였다. 16개 기관 분류는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주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서 활용하는 사회서비스 유형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동 조사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 욕구를 8개 대분류 18개 중분류로 분류한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장애노인에 해당되지 않거나 데이터상 추출이 되지 않는 아동돌봄, 주거, 환경을 제외하고 돌봄, 건강, 교육, 고용, 문화로 구성하였으며 문화영역에는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2.2 Determinants of Social Service Needs

사회서비스 욕구 유형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앤더슨 모델(Andersen Model)을 활용한다. 의료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이용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영역과 대상을 중심으로 이용행태와 이용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들에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앤더슨 모델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요인(enabling factors) 그리고 욕구요인(need factor)으로 구분하며[15]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로 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유형별로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선행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이 포함되며 가능요인은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만성질환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원 수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욕구요인은 장애정도, 장애유형, ADL, IADL이다.

3. Data Analysis

장애노인의 사회서비스 욕구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율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서비스 욕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욕구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Stata18.0을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중심적 관점의 분석방법인 잠재계층분석은 주로 변수간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과 달리 대상을 유사한 패턴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초점을 두는 대상 중심적 관점의 분석 방법이다[16]. 각 집단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적절한 잠재계층 적합모형을 찾기 위해 2개부터 계층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며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잠재계층분석에서 분류되는 잠재유형의 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보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BIC의 값을 통해 적합도 지수와 분류의 질(Entropy)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LCA를 통해 유형화된 사회서비스 욕구 유형별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IV. Analytical results

1. Descriptive analysis

1.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고령화된 장애인은 1,886명(47.9%), 노화에 따른 장애인은 2,050명(52.1%)로 확인되었다.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된 장애인은 남성 비율(59.1%)과 심한장애 비율(43.9%)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제활동 참여율(27.8%)도 노화로 인한 장애인(1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양 집단 모두 신체외부장애가 가장 많았으나, 고령화된 장애인에서는 정신적장애 비율이 더 높았다. 교육 수준은 고령화 집단에서 고졸 이상이 33.4%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 72.3세, 노화로 인한 장애인 79.4세로 후자가 더 고령이었다.

기능 상태(ADL와 IADL)는 수치가 높을수록 도움일 필요로 하는것을 의미하는데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에서 ADL(1.3점)과 IADL(1.8점) 점수가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ADL 1.2점, IADL 1.5점)보다 높아,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제약 수준이 더 크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시사하였다. 만성질환 보유율은 두 집단 모두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이 더 낮았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ging with Disability	Disability with Aging
gender	female	40.9%	48.2%
	male	59.1%	51.8%
disability severity	severe	43.9%	33.3%
	mild	56.1%	66.7%
type of disability	external physical	81.0%	80.6%
	internal organ	14.5%	18.1%
	mental	4.5%	1.3%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66.6%	73.1%
	≥ high school	33.4%	26.9%
chronic disease	yes	94.1%	97.1%
	no	5.9%	2.9%
employment status	yes	27.8%	15.8%
	no	72.2%	84.2%
region of residence	urban	28.3%	27.4%
	rural	71.7%	72.6%
age(mean, sd)		72.3(±5.6)	79.4(±7.1)
household size(mean, sd)		2(±1.0)	2(±1.0)
economic status(mean, sd)		1.7(±0.7)	1.7(±0.7)
health status(mean, sd)		3.5(±0.9)	3.7(±0.8)
ADL(mean, sd)		1.2(±0.4)	1.3(±0.6)
IADL(mean, sd)		1.5(±0.7)	1.8(±0.9)
total	% of total	100.0%	100.0%
	number of total	1,886	2,050

1.2 Social Service Needs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 모두에서 돌봄영역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두 집단 모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 욕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53.9%, 노화로 인한 장애인의 경우 48.8%로, 전체 응답 항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이동지원이 일상생활과 의료 접근, 사회참여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지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건강, 문화(사회참여), 교육, 고용 순으로 욕구가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에서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영역별로는 건강영역에서 양 집단 모두 재활병의원 이용 욕구가 가장 높았으나, 고령화된 장애인은 재활지원센터, 노화 집단은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각각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문화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졌으며 교육과 고용 영역은 전체적

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정보화 교육기관과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욕구는 노화로 인한 장애인 집단에서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서비스 영역 내에서도 집단별로 선호하는 서비스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서비스 기획 시 이를 고려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2. Distribution of Social Service Needs (n,%)

Social Service	Type of Institution	Aging with Disability	Disability with Aging
care	day-care facility	262(12.8)	183(9.7)
	family support center	136(6.6)	108(5.8)
	daily mobility support center	307(15.0)	217(11.5)
	mobility support center	1,104(53.9)	921(48.8)
health	sports facility	145(7.1)	193(10.2)
	mental health center	131(6.4)	144(7.6)
	rehabilitation clinic	497(24.2)	466(24.7)
	rehabilitation support center	162(7.9)	154(8.2)
culture	social welfare center	340(16.6)	390(20.7)
	rights advocacy agency	129(6.3)	147(7.8)
	disability organizations	77(3.8)	121(6.4)
education	library	25(1.2)	41(2.2)
	IT training institute	63(3.1)	89(4.7)
	independent living support center	47(2.3)	80(4.2)
	educational Ins.	28(1.4)	54(2.9)
employment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33(1.6)	62(3.3)

2. Latent Class Analysis of Social Service Needs by Disability Onset

이어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 각각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잠재계층 적합 모형을 도출하였다. 적합도와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집단에서 모두 3개 계층으로 분류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모형이 구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두 집단 모두 잠재계층 수는 3개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잠재계층별로 조건부 응답 확률을 확인하고 각 특징을 반영하여 각 잠재계층에서 응답확률이 높은 욕구를 중심으로 이를 포괄하는 명칭을 제시하였다. 먼저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에서 첫 번째 계층은 '최소 욕구형', 두 번째 계층은 '돌봄·건강 중심형', 세 번째 계층은 '문화중심 다차원 욕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어서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에서 첫 번째 계층은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최소 욕구형', 두 번째 계층은 '돌봄 집중형', 세 번째 계층은 '다차원 욕구형'으로 명명하였다(<표 3>).

전술한 바와 같이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첫 번째 계층은 '최소 욕구형'으로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 욕구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두 번째

및 세 번째 계층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은 돌봄과 건강 그리고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는 계층이 도출된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에서는 문화영역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고 돌봄에 대한 집중적인 욕구가 뚜렷하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장애 발생 시점에 따라 사회서비스 욕구의 양상과 중점 영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3. Latent Class Labels

	Aging with Disability	Disability with Aging
class1	Low-Need Type (n=1,131, 60.0%)	Low-Need Type (n=1,308, 63.8%)
class2	Care and Health-Oriented Type (n=597, 31.7%)	Care-Focused Type (n=621, 30.3%)
class3	Culture-Centered Multidimensional Need Type (n=158, 8.4%)	Multidimensional Need Type (n=121, 5.9%)

3. Analysis of Differences in Social Service Needs by Latent Class

응답 경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 집단에 대해 잠재계층유형별로 주요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 집단에서 모두 최소 욕구형(class1)이 높게 나타나 두 번째(class 2)와 세 번째 계층(class3)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에서(<표 4>) '돌봄·건강 중심형'(class 2)과 '문화중심 다차원 욕구형'(class 3)은 모두 신체외부장애와 만성질환 보유 비율이 높아, 건강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거주지역, 연령, 성별에서 차이를 보인다. '돌봄·건강 중심형(class2)'은 학력과 경제활동 수준이 낮고 여성(41.5%)과 고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ADL과 IADL 점수(각각 1.2점, 1.6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며,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건강 및 돌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문화중심 다차원 욕구형(class3)'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42.4%), 경제활동 참여자(37.3%), 도시 거주자(84.8%)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문화·여가를 포함한 다차원적 서비스 욕구가 높은 집단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집단은 남성 비율이 가장 높고, 평균 연령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도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보인다.

Table 4. Group of Aging with Disability

	class1	class2	class3	X^2/F
female	41.9	41.5	31.0	7.0*
male	58.1	58.5	69.0	
disability severity				
severe disability	42.6	46.9	41.8	3.2
mild disability	57.4	53.1	58.2	
type of disability				
external physical	79.4	83.6	82.9	11.0*
internal organ	16.6	11.4	11.4	
mental	4.0	5.0	5.7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67.8	66.67	57.6	6.5*
≥ high school	32.2	33.33	42.4	
with chronic disease	93.2	96.0	93.0	5.8
no chronic disease	6.8	4.0	7.0	
economically active	29.6	21.9	37.3	19.2***
not economically active	70.4	78.1	62.7	
urban resident	68.7	74.0	84.8	20.0***
rural resident	31.3	25.9	15.2	
age(mean, sd)	72.7 (5.7)	72.1 (5.6)	69.7 (4.7)	20.8*** (@,ⓐ)>ⓒ)
household size (mean, sd)	2.0 (0.9)	1.9 (0.9)	0.9 (0.9)	3.9* (@)>ⓐ)
economic status (mean, sd)	1.7 (0.7)	1.6 (1.5)	1.5 (0.7)	10.0*** (@)>ⓐ,ⓒ)
health status (mean, sd)	3.5 (0.9)	3.6 (0.8)	3.4 (0.9)	2.1
ADL(mean, sd)	1.2 (0.4)	1.2 (0.4)	1.1 (0.3)	3.5* (ⓐ)>ⓒ)
IADL(mean, sd)	1.5 (0.8)	1.6 (0.8)	1.4 (0.6)	3.5*

*p<.05, ***p<.001

주: @-class1, ⓐ-class2, ⓒ-class3

이어서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 결과는(<표 5>) ‘돌봄 집중형’(class2)과 ‘다차원 욕구형’(class3) 모두 만성질환 보유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고, 신체외부장애와 정도가 심한장애의 비율이 높은 점에서 건강 및 돌봄 관련 욕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계층은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거주 지역, 연령, 일상생활수행능력(ADL/IADL)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돌봄 집중형(class2)’은 ‘다차원 욕구형(class3)’에 비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비율이 72.3%로 높고, 도시 거주자 비율은 75.5%로 보다 낮으며 비경제활동자 비율은 87.6%로 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높은 편이었으나 ADL(1.4점), IADL(1.9점) 점수가 세 계층 중 가장 높아,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 크고 일상적 돌봄에 대한 지원 필요가 높은 집단으로 해석된다. 반면 ‘다차원 욕구형(class3)’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 비율이 38.8%로 다른 집단보다 높고, 경제활동 참여율 또한 29.8%로 ‘돌봄 집중형’(12.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 거주자 비율은 86.8%로 세 계층 중 가

장 높게 나타났다. ADL과 IADL 점수(각각 1.1점, 1.4점)에서도 세 집단 중 일상생활에 있어 제약이 낮게 나타나 계층이 돌봄 중심의 기본적 서비스 수요를 넘어 교육,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율성과 참여 욕구가 높은 집단임을 시사한다.

Table 5. Group of Disability with Aging

	class1	class2	class3	X^2/F
female	49.2	47.2	43.0	2.1
male	50.8	52.9	57.0	
disability severity				
severe disability	67.6	64.9	66.9	1.4
mild disability	32.4	35.1	33.1	
type of disability				
external physical	80.6	82.3	71.9	8.8
internal organ	18.4	16.1	25.6	
mental	1.1	1.6	2.5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74.5	72.3	61.2	10.4**
≥ high school	25.5	27.7	38.8	
with chronic disease	97.1	97.4	95.9	0.9
no chronic disease	2.9	2.6	4.1	
economically active	16.1	12.4	29.8	23.2***
not economically active	83.9	87.6	70.3	
urban resident	69.9	75.5	86.8	19.8***
rural resident	30.1	24.5	13.2	
age(mean, sd)	80.2 (7.1)	78.6 (6.6)	75.1 (7.2)	35.8*** (@)>ⓐ)>ⓒ)
household size (mean, sd)	2.0 (1.0)	2.0 (1.0)	1.8 (0.8)	1.6
economic status (mean, sd)	1.7 (0.7)	1.7 (0.7)	1.7 (0.7)	1.9
health status (mean, sd)	3.7 (0.9)	3.8 (0.8)	3.6 (0.9)	3.4*
ADL(mean, sd)	1.3 (0.6)	1.4 (0.6)	1.1 (0.2)	9.9*** (ⓒ)>ⓐ,ⓐ)
IADL(mean, sd)	1.8 (0.9)	1.9 (0.9)	1.4 (0.5)	16.4*** (ⓐ)>ⓐ)>ⓒ)

*p<.05, **p<.01, ***p<.001

주: @-class1, ⓐ-class2, ⓒ-class3

V. Conclusion

본 연구는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유형화하여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 간 구조적 특성과 욕구 양상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별로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지만, 각 유형의 구성 비율 및 유형별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분류된 최소욕구형을 제외하고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에서는 돌봄-건강 중심형과 문화중심 다차원 욕구형 유형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났으며,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에서

는 돌봄 중심형과 다차원 욕구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구성에 각 집단 별로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 거주지역, 일상생활능력 등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문화중심의 다차원 욕구가, 학력이 낮고 경제활동이 없으며 고령이면서 일상생활 수행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돌봄 및 건강중심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에서는 학력이 낮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큰 경우 돌봄에 집중된 욕구를 보였다. 반면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시에 거주하며 일상생활 제약이 낮은 집단에서는 다차원 욕구가 확인되었다. 고령화된 장애인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자립 및 사회참여 영역에서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으며, 노화로 인한 장애인은 기능적 제약에 따른 돌봄 중심의 서비스 수요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자립과 사회참여 욕구가 강한 반면 노화에 따른 장애인은 요양 및 간병 중심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크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궤를 같이한다[4][5].

이상의 분석 결과는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집단이 유사한 계층 구조를 가지더라도, 각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상생활 정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오랜 기간 장애를 가지고 고령에 이른 경우와 고령 이후에 장애를 경험한 경우는 당사자의 인식과 태도, 정체성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며[7],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단일한 기준으로는 각 집단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제도·전달체계·서비스 이념 등에서 분절되어 있는데 고령화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 복지체계 내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제도 혼선이나 서비스 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2][7]. 이는 두 집단에서 모두 최소욕구형이 도출되었으며 해당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밀한 접근이 요구되는데, 장애인노인은 노인과 장애 두 복지영역의 '공유영역'에 해당하므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기능 수준과 생애경로에 따라 사회참여 중심 또는 돌봄 중심의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분화할 필요가 있다[2]. 욕구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장애인 정체성이 강하며 사회참여 욕구가 있는 고령화된 장애

인에게서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용 쉼터 등을 통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5]. 그리고 장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돌봄과 의료욕구가 높은 노화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5][11].

장애노인은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위험을 공유하지만 양 집단 간 장애 정체성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 특성과 욕구를 탐색적으로 확인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다. 우선 '노인성 장애인', '고령화된 장애인', 노화로 인한 장애' '장애인의 노화' 등 개념 정의와 용어가 학술적 차원에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의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 없고 장애의 노화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 빠르게 진행되며 노인의 장애발생 시기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6][7] 두 집단의 연령 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와 인구학적특성을 중심으로 도출된 욕구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실증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의 노화 과정과 그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3&conn_path=I2
- [2] S. H. Kim, S. Lee, S. Noh, and I. Jeong, "A study on service linkage plan for the disabled elderly peopl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2011.
- [3] H. T. Yang and W. W. Shin,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52, No. 52, pp. 255-278, 2011. DOI: 10.21194/kjgsw..52.201106.255
- [4] Y. M. Lee, "The study on the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elderly: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No. 62, pp. 35-58, 2013. DOI: 10.21194/kjgsw..62.201312.35
- [5]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 "Half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elderly: The policy blind spot for older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no longer be delayed,” Monthly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 No. 436, 2023.

- [6] J. Ahn and C. O. Kim, “The depression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using panel GLS model: focusing on group differences between the disability with aging and the aging with disability,” *J. Regional Stud.*, Vol. 32, No. 1, pp. 201–232, 2024. DOI: 10.22921/jrs.2024.32.1.008
- [7] S. G. Lee, Y. T. Kim, and D. B. Park, “Determinant factors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On the basi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elderly with early-onset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with late-onset disabilities,” *Korea Academy of Care Management*, No. 12, pp. 221–245, 2014.
- [8] Y. R. Shin, K. M. Kim, D. C. Yoo, and D. K. Kim, “Exploring the experience to be old from the perspect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No. 50, pp. 200–240, 2016.
- [9] H. Kang, “Social service policy and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s in Korea,”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No. 25, pp. 67–98, 2008.
- [10] E. Kang, S. Ahn, S. Lee, and H. Lee, “The 2023 outlook for social service polic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 315, pp. 40–62, 2023. DOI: 10.23062/2023.01.4
- [11] J. Lee, J. Ryoo, T. Ha, and D. Oh, “A study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needs of older adults households living alon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2, No. 3, pp. 195–214, 2021. DOI: 10.16881/jss.2021.07.32.3.195
-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Microdata*, 2023.
- [13] M. Lee et al., “Disability survey 202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2023.
- [14] Y. H. Kim, J. Lee, J. E. Lee, H. Kin, S. K. Park, S. Ahn, and H. Lee, “Social service demand and supply survey 2023: Demand surve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2023.
- [15] R. M. Andersen,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pp. 1–10, 1995. DOI: 10.2307/2137284
- [16] L. R. Bergman and D. Magnusson,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9, No. 2, pp. 291–319, 1997. DOI: 10.1017/S095457949700206X

Authors



Daeun Oh received the Master’s degrees in Social Welfare and from Sungkyungwan University, Korea, in 2015, and completed doctoral coursework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he is currently working as a senior researcher at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ealthcare, and social security systems.